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내년 국가예산 확보 '시동'

전북도, 새정부 국정과제 부처예산 최대 반영 위해

조봉업 행정부지사, 기재부 농식품부 등 찾아 건의

전북도가 본격적인 부처 예산편성 돌입에 앞서 지휘부 중앙부처 방문 활동을 전개하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장도에 올랐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7일 중앙부처를 찾아 전북도 주요 핵심사업의 예산 반영 건의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 전북 지역공약의 대통령 공약사업 및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했다.

먼저 기재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과 강원구 재정관리국장을 찾아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군산항 제2준설도 투기장 건설' 등 4개 사업의 예타 통과와 함께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조 부지사는 농식품부를 방문해 윤석열 당선인의 전북 지역공약인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대통령 공약사업 및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은 윤 당선인의 전북 7대 공약 중 하나이며, 전북지역 공약 및 당선인 정책 공약집에 반영된 사항으로, 도정 역점시책인 '아시아스마트농생명벨리'를 고도화하고 농생명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다. 조 부지사는 또,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과 '메타버스 기반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정과제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예산 건의사업으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농식품부)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농업인 교육 기반 구축'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반영을 건의하고, '국립 농어촌터미널 전문연수원 건립'과 자립형 사회적 농장 기반 구축 및 연관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국비 반영도 건의했다.

또한,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두 개 사업 모두 윤 당선인 지역공

약으로서 대통령 공약사업 및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전북 7대 공약인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공약의 세부 과제로 '지리산-무진장 연계 휴양관광벨트 조성' 사업과 휴양과 힐링의 웰니스관광 거점지역 육성 사업의 국정과제 반영과 함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도는 급변하는 국가예산 확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초까지 지휘부 릴레이 방문 활동을 펼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새정부 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에 부합되도록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지속·보완해 대응하고, 당선인 지역공약 등 주요 사업들이 최대한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실국에서는 실국장을 중심으로 부처 담당 과장 및 사무관을 방문해 실국 활동을 병행하고, 정점 사업에 대해서는 정치권 및 시·군과의 공조 체계를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처예산안 최대 반영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를 필두로 지휘부가 총출동해 릴레이 방문 활동을 통해 전북도 중점사업 반영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시동을 건 가운데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7일 중앙부처를 찾아 전북 현안사업의 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홀로그램 중심지 자리잡도록 협력·지원"

신원식 도 정부부지사 원광대서 추진상황 점검 기업 의견 청취 나서

2023년까지 기술개발 6건 기업지원시설 2건 등에 투자

신원식 전북도 정부부지사가 7일 원광대학교를 방문해 '홀로그램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북도의 홀로그램 사업은 지난 2019년 6월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 예타 통과를 시작으로 본격화해 오는 2023년까지 기술개발과제 6건, 기업지원시설 2건, 체험시설조성 1건 등에 827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도는 홀로그램 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실증과 연관사업인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국가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홀로그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홀로그램 신동학 대표는 "홀로그램 기업지원기관에서 추진 중인 제작 지원 사업과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최근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



신원식 전북도 정부부지사가 7일 원광대학교를 방문해 '홀로그램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가하고 있어 홀로그램 기술 상용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신원식 도 정부부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시대가 앞당겨지면서 홀로그램 등 가상융합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북도가 자동차, 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이 가능한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인 홀로그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도록 대학, 연구기관들과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그간 전북도와 익산시는 홀로그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집적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업 유치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지난 2020년 이후 홀로그램 기업 14개사를 익산으로 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호상 기자

산업용지 확충 '만전' 산단 경쟁력 강화

도, 노후 산단 재생사업·청년유입 정책 추진 중

전북도가 안정적인 산업용지 공급으로 기업유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 밑거름을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지정된 산업단지가 총 90개에 달하며, 조성 중인 5개 단지를 2030년까지 마무리하고, 기존 단지분양이 완료된 김제시에 신규 1개 단지를 추가 지정하는 등 산업용지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노후 산단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줄 다각적인 재생 사업과 청년유입 정책을 추진 중이다.

노후산단 재생사업으로 7개 단지에 총 1,317억 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노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도, 관리사, 배수관로 등 정비사업, ▲제조업체 물류비 및 폐수배출 위탁처리비 50% 보조사업 등 산단 내 입주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산단 내에 문화, 주거, 복지, 편의 기능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8개소, 491억원)하고, 청년 근로자에게 매달 교통비 5만원을 지원하는 등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도 꾀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단 내 EV소재·부품 실험실과 장비를 구축해 산단 입주기업의 친환경화 및 인건관리 역량 강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유호상 기자

더불어 최근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산업부,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 신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21년 군산 국가산단단지를 중심으로 선정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노후 산단인 군산 국가산단, 익산 제2일반산단 등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글로벌 거점으로 조성 중이다.

도는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첨단투자자구를 활용해 첨단기업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제조업의 핵심 공간인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노후화되면서 지역산업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전북도는 정부 지원사업, 자체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https://www.sunchang.go.kr

"자연이 수놓은 보물"

관광 순창 도시 순창

산길을 걷고 바위길을 오르고 구름다리를 건너고 일상에 썬표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순창이 있습니다

순창군 SUNCHANG